

조나단 그리어(Jonathan Greer) 박사, 고고학과 구약 성서, 세션 5, 문화적 맥락

© 2024 조나단 그리어(Jonathan Greer)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이 구약성서에 나오는 조나단 그리어(Jonathan Greer) 박사와 그의 고고학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세션 5, 문화적 맥락입니다.

다시 안녕하세요. 우리는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여기에 왔고 문화적 맥락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 구조, 음식 방식, 종교에 대해 조금 살펴보고 각 강의의 경우처럼 표면만 살펴보고 향후 연구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의 구조를 생각할 때 일반적인 모델은 Larry Steger, David Sloan, Dan Master 및 기타 여러 사람들이 대중화한 세습 가족의 모델입니다. 전통 사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 사회 패턴과 고고학과의 긴밀한 상관 관계에 따르면, 가장 작은 단위에서 아버지의 집, 중심 남성 인물과 그의 자녀, 그리고 대가족이 있는 이 제한된 가족을 봅니다.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건축물의 발굴, 건축물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레벨은 클랜, 그리고 부족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기간의 정점에는 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분은 야훼입니다. 그리고 여기 슬래시 표시로 묘사된 방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과 왕은 둘 다 일종의 위태롭게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주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여전히 군주제를 이 가계 모델에 맞추려고 노력한다면 신과 왕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됩니다. 특히 형상 보유에 대한 이전 논의로 돌아가서 모든 인간이 공동 형상 보유자라면 이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가정의 사회 구조와 신의 사이에 어떻게 위치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긴장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일상은 어떠했을까요? 그것은 무엇을 먹을지 생각하고 행동하고, 음식을 모으고,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이 없는 시간을 준비하는 데 하루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매우 자급자족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첫 번째 관심사는 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빗물을 수조에 모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폭풍우가 지나간 직후에 찍은 헬레니즘 시대 후기 수조의 사진이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녹색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예레미야서에서 생수가 샘에서 흘러나와 한 해가 지나도 고이게 되는 고인 물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생수를 저수조로 바꾸면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죄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석고가 갈라져서 새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저수지 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의 은유와 언어로 나타나는 일상적인 이미지 중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 물, 물. 이것은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고 물이 나오는 현대 상황에서 실제로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은 저수지나 샘이나 강이나 우물에서 길어야 했고 그 양은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와디(wadis)라는 계절에 따라 흐르는 물이 흐르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일년 내내 건조하다가 우기 동안 돌발적인 홍수의 힘으로 돌진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풍경을 조사하고 정착지와 문명을 조정함으로써 수원에 대해 고고학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재배되는 농산물은 포도와 대추야자, 밀과 보리, 석류, 무화과와 꿀로 구성되어 있으며, 랍비들의 주석에 따르면 그 땅이 젖의 땅이라고 일컬어질 때 그리고 여보, 그것은 데이트 여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Tel Rehov에서 산업 수준의 양봉장과 벌집이 발견되면서 우리는 그것이 아마도 꿀벌의 꿀일 수도 있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확실히 꿀을 소비했습니다.

그들이 소비한 비동물성 식물, 과일 및 채소의 대부분은 미세고고학 연구를 통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기계를 사용하여 발견하거나 감지할 수 있는

유적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현미경, 가축, 양, 염소, 소, 사냥도 가능합니다. 사냥은 고대 사회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며, 사냥과 가축 사이의 뚜렷한 구분이 모호했을 수도 있다고 일부 사람들은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물 뼈 기록에서 주로 양, 염소, 소의 표현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견한 세 가지 주요 동물 뼈 유형입니다. 야생 사냥감, 특히 가젤과 사슴의 수는 적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돼지에 대한 제한된 증거도 있으며 고대 세계의 차량에서 나온 동물 뼈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여행은 도보로 이루어졌지만 차량이나 휴대용 트렁크가 있는 경우 이러한 맥락에서 당나귀가 선호되는 수하물 운반 장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가 도착했을 때 장거리 무역에는 낙타가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천년기. 그래서 여기서 동물원고고학은 고고학 유적지의 동물 뼈 분석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단의 주요 성분은 빵, 밀과 보리로 만든 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고학, 민족지학 연구, 그리고 성경을 통해 파종, 수확, 타작, 키질을 통해 곡물에서 빵으로 변하는 과정에 대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선별 및 처리.

우리는 쟁기의 끝 부분이 될 수 있는 철제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인간이나 동물의 힘으로 땅을 부수는 도구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이전 작물에서 저장되었을 씨앗을 뿌렸을 것이고, 밭이 자라면서 부싯돌 칼날이 심어진 나무였던 낫의 고고학적 유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뼈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곡식이나 줄기가 모아져서 타작 썰매에 휩쓸려 갔을 것입니다. 따라서 타작 썰매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상대적으로 현대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썰매 바닥에는 약간의 돌이나 금속, 기타 단단한 물질이 있었고, 그런 다음 타작 썰매 위로 끌려가 머리와 타작 썰매를 분리했습니다. 왕겨. 그리고 다음 단계는 키질과 체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노출된 기반암 석판을 발견합니다. 그곳에서는 갈퀴 모양의 도구를 사용하여 씨앗과 줄기의 으깬

덩어리를 던진 다음 겨가 날아가는 곳으로 까불고 곡물은 바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모아서 슯돌로 가공합니다. 우리는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많은 슯돌을 발견합니다. 아래쪽의 안장돌과 위쪽의 슯돌,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것은 곡식을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집트의 예입니다.

그러다가 인류 문명 초기에는 약간의 밀가루와 물을 잠시 놔두면 공기의 효모를 이용해 자연적인 과정을 거쳐 발효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른바 사워도우 빵이 바로 그것이다. 빵은 현대의 효모 발명까지 존재합니다. 그런 다음 함께 섞이면서 밀가루와 물이 부풀어 오른 다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븐이나 금기에서 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전통 사회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빵 만들기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전체에서 빵 굽기에 대한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 중 하나는 아모스서에 나오는 것인데, 겉보기에는 수확의 각 과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빵을 만드는 각 단계, 뜨거운 오븐에 대해 말하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이야기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고대 이스라엘의 현실 세계에 뿌리를 둔 이러한 종류의 은유를 봅니다.

뿔개나 담요를 펼쳐 떨어지는 올리브를 수집하는 방법을 비교적 최근에 촬영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건조한 피부에 윤활유를 바르는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녁을 밝히는 올리브 램프의 연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석유 생산 방법은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주 제조 과정에 대한 증거도 가지고 있지만 고고학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올리브를 압착하는 과정의 예입니다. 올리브를 모아서 대야에 넣고 그 위에 슯돌을 돌려서 으깬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씨와 과육, 씨앗을 포함했을 올리브. 그리고 나서 이 으깬 것을 모아서 바구니에 담고 돌 위에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흠이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프레스의 다른 쪽 끝에 있는 빔에 무게를 가하여 바스켓을 찌그러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흠을 따라 흘러내리는 기름을 짜내고 세라믹

용기에 모으는 다양한 압착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 전체에서 이러한 포도주 압착기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와 시대에 따른 약간의 양식적 변화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한 많은 증거를 고대 이스라엘에서 발견합니다.

일상생활에 중요했을 다른 기술로는 도자기가 있습니다. 점토를 가져와서 굽기 전에 다양한 개재물을 냄비의 천에 섞고, 완성된 온도에 따라 점토를 특정 방식으로 단련하는 것입니다. 냄비가 노출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요리 냄비의 경우 요리 냄비가 불에 직접 놓여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종종 템퍼링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리하고, 저장하고, 먹고, 소비하기 위해 도자기를 사용했습니다.

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식물 생산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고학 기록에 남은 것은 수집된 모든 양동이에서 깨진 도자기 조각을 발견하는 도자기와는 달리, 지난 세대에 식물의 경우 유일하게 남은 것은 수직 가닥을 매달아 두었던 직기 추뿐이었을 것입니다. 직기의 일부.

이제 우리는 육안으로는 사라진 식물에 대한 미시고고학적 증거를 볼 수 있으며, 드물게 요르단 계곡과 네게브의 매우 건조한 환경에 보존된 식물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무두질과 가죽이 의류에 사용되었고 나중에는 양피지로도 사용되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건축은 나무와 돌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실제로는 나무보다 돌이 더 많습니다. 나무는 희귀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벽과 구조물은 돌로 지어졌을 것이고 나무는 그 공간을 가로지르는 들보였을 것입니다. 야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용된 다양한 기술과 이러한 야금 시설 중 일부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증거는 여전히 고고학적으로 발견될 수 있으며, 작은 프릴, 광석이 추출되는 제련소에서 때때로 골라낼 수 있는 작은 금속 조각을 포함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기존 금속 품목을 도가니에 넣어 녹여 재사용하는 용해 시설이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금속 도구를 찾는 것은 끝없이 재활용되고 재사용되었기 때문에 생각만큼 자주 발견되지 않습니다.

금속 도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녹여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문화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종교의 측면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묘사된 관습에서 이스라엘 종교의 모습을 발견 하고 고고학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가 발견한 것과 많은 공감을 발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숭배했던 것이 야훼만이 아니었다는 수많은 증거를 발견하고 일부는 이것을 고대 이스라엘의 일종의 다신교적 표현에 대한 증거로 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야훼는 말할 것도 없고, 야훼에 대한 모든 종류의 충성은 확실히 소수의 의견으로 투영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나 선지자서를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여러 신을 숭배하고 그것들을 야훼 숭배와 결합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고학 기록에.

그래서 나는 그것을 불협화음이 아니라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 공명이라고 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경적 관점에는 몇 가지 복잡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종교가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고고학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천에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은 더 복잡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도구, 물질적 유물과 도상학적 유물, 심지어 유일한 유물인 이름은 민족지학적 유사점으로서 이 왕국의 그림 일부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도 비유를 통해 고대 민족과 전통 사회에 살고 있는 보다 최근의 민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켈트 장소에 대해 생각할 때 켈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때로는 켈트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UFO가 오기를 기다리는 종파주의자나 그와 유사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순전히 종교의 실천으로서의 숭배, 종교의 실천으로서의 숭배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켈트 설치물을 보고 있다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종교가 행해졌던 장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식별하기 위해 인류학자들은 예배 장소가 있는 곳을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 일부는 매우 명백하며 특정 신이나 비문의 아이콘이나 이미지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일종의 의식 활동, 한 장소에 대량으로 나타나는 특정 유형의 유물, 특정 장소에 묻혀 있는 인형 또는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동물 뼈를 암시할 수 있는 물질 문화의 반복되는 패턴을 보기 시작합니다. 향이나 형상 등을 태우는 데 필요한 다른 그릇과 함께 구덩이를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종의 데이터 집합을 사용하여 고대 세계 전반, 특히 여기 고대 이스라엘에 다양한 예배 장소와 다양한 예배 센터를 설립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벤치가 있는 작은 방을 발견하고 향로나 칠한 스탠드, 때로는 이미지, 특히 특이한 그릇이 있는 소위 컬트 코너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다양합니다.

때로는 동물 모양의 동물 형태를 띠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조각상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컬트 코너라고 불리는 작은 설치물을 가지고 있으며, 아주 소수의 예에서는 더 큰 사원, 더 큰 사원도 있습니다. 단(Dan)의 아라드(Arad)에 사원이 있고, 모차(Motza)에서 새로운 사원이 발견되었습니다.

브엘세바에는 큰 제단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승배와 관련된 철기시대 1의 초기 유적지도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곳은 에발 산에 있는데, 내 생각에는 그곳이 성지처럼 보이지만, 성경 전통에는 본문 비평적 근거에서 약간의 복잡성이 있어 우리가 그 곳을 찾고 있다면 그리심 산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묘사된 제단.

그래서 에발과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성지라는 좋은 증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부착해야 하는가, 그 구성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황소 유적지는 제의적 승배의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는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이며, 그곳에서 발견된 작은 황소는 많은 사람들이 소 이미지와 관련된 성경에 묘사된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황소가 가나안 종교와 당시의 다른 많은 종교에서 공통적인 상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출애굽기 32장과 열왕기상 12장의 이야기에서 교차되고 특히 그러한 맥락에서 북부 종교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제가 이전에 언급한 대로 Tel Dan에서 공원 관리국이 이 땅 어느 곳에서나 발견한 이 네 뿔 스타일의 가장 큰 제단이 될 금속 뼈대를 재건한 곳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뿔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2차 용도로 사용되는 뿔 중 하나만 발견했기 때문에 제단 바닥을 기준으로 해당 크기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는 실제로 적어도 내 해석으로는 이 성소에서 야훼에 대한 예배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고고학적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의 제사장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희생 제사에 대한 규정과 매우 잘 들어맞는 동물의 뼈 유해에 대한 대응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내 논문 연구의 주제였으며, 안뜰의 왼쪽 부분과 달리 오른쪽 부분과 성직자와 연결되는 공간 사이의 일치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의 처방에서 어떤 본문에 따라 오른쪽 어깨나 오른쪽 넓적다리가 주어졌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를 읽는다면 흥미로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뼈와 관련된 다른 연결도 서너 개 더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듯이 야훼 숭배에 대한 성경적 설명과 연결되는 몇 가지 흥미로운 유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의 이름 야훼의 요소가 포함된 이름, 즉 신권적 이름이 적힌 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조각들을 종합할 수 있듯이 Tel Dan에서 숭배되었던 신이 실제로 야훼였다는 증거가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확실히 8세기에 그리고 9세기에 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 고고학의 대부분은 아직 평가 중입니다. 아키텍처가 일부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텔 모차(Tel Motza)에 있는 이 사원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데, 기원전 9세기와 8세기에 건설된 것으로, 예루살렘과 너무 가까운 이 사원이 어떻게 예루살렘 사원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많은 흥미와 질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예루살렘 성전, 또는 성경 본문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에 관해 말하면,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기능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데 많은 복잡성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우리에게서 물질이 전혀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석류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어쩌면 용도 변경된 유물과 위조품이 하나로 결합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성전에 대한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묘사는 역사상 다양한 장소에 있었던 성전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심지어 특정한 시기에 일어난 개조 공사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따라서 성서적 전통은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을 제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삽입된 창부터 이동식 망아지 스탠드, 그룹의 도상학에 이르기까지 설명되는 사물의 유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놀라운 고고학 비교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통통한 아기가 아니라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몸, 날개를 갖춘 흉포한 수호수였다.

이들은 안다라 성전 옆에 있는 수호 짐승인데, 옆방, 현관, 홀, 지성소가 있는 솔로몬 성전에 대한 설명과 많은 유사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상학적인 모티프, 건축적 특징, 현관에서 메인 홀, 지성소로 진행되는 소위 삼자 구조의 많은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Tel Dan에도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도상학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장식은 로제트부터 그룹, 팔메트, 매입형 창문, 석류 등입니다. 우리는 또한 향을 담거나 신주를 붓거나 향을 태우는 그릇, 심지어 제단 그릇에 사용되는 다양한 망아지 받침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Western Chambers에서 발견된 Tel Dan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이 조감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쪽 방에 있는 작은 방에서 가로 1 미터의 작은 제단 옆에 아주 흥미로운 도구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이 아름다운 청동 그릇입니다.

다른 하나는 삽 한 쌍입니다. 동일해 보이는 두 개의 삽이 발견되었는데, 하나는 다른 것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손잡이가 긴 삽.

그리고 불에 탄 동물의 유해로 가득 찬 움푹 들어간 냄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물의 집중에서 놀라운 점은 성막이나 성전 제단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성경 본문을 볼 때 매우 구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 그릇이

있고, 한 쌍이 있고, 항상 한 쌍의 재 제거 삽, 향 삽, 재 냄비가 있고 일부 목록에는 포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연구에서 나는 이 그릇을 제단에 튀기기 위해 희생 동물의 피를 담았던 성경의 피 그릇과 연관지었습니다. 이 한 쌍의 삽은 설명된 한 쌍의 삽처럼 성경 본문에서 항상 대접과 나란히 있습니다. 향 삽, 우리는 로마와 비잔틴 시대까지 이어지는 이것들에 대한 후기 묘사를 통해 종종 향을 태우는 데 필요한 훨씬 더 넓은 표면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떨이는 내가 언급했듯이 이미 성경 본문에 등장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휴대성이 뛰어나며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세라믹입니다.

나는 내 친구 중 한 명에게 내가 찾지 못한 유일한 것은 포크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슷한 자료를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Andrew Davis는 현재 Boston College에 있는 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서 기록을 확인했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이 방의 문지방에서 긴 금속 손잡이가 발견되었습니다. 두 갈래가 부러진 세 갈래 포크를 뭐라고 부르나요? 긴 금속 손잡이라고 부르죠. 어쩌면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 본문의 모든 목록에 포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과 다른 것들은 다시 성경과 고고학의 내용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예는 고대 이스라엘과 유다 전역에서 소위 JPF, 유대인 또는 유대 기둥 인형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형은 여성을 묘사하고 때로는 작은 여신 이미지로 아세라 숭배와 관련되어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아세라는 후기 청동기 시대의 신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아세라는 이 시대에도 신인가? 아니면 아세라의 실제 형상이 아닌데도 아세라 숭배를 연상시키는 요소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점토로 만든 기도이거나 임신과 수유 과정에서 여성을 돕기 위한 일종의 부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충실한 일부 왕, 즉 히스기야와 요시아 왕의 시대에 예루살렘 자체에서 이러한 물질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발견을 통해 고대 이스라엘 숭배의 물질 문화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 변칙적 증거, 즉 이 성경 시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름이 있고, 고고학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이름도 있습니다.

여기 히스기야 인장이 있고 이것은 사마리아 오스트라카의 사진입니다. 도자기 조각은 아마도 9세기나 8세기에 메모지, 영수증, 올리브유 선적 추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들을 살펴보면, 종교 문제와 관련하여 특별한 점은 이 이름들 중 상당수가 신권적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름에 신의 이름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조나단, 요나탄입니다. 요(Yo)는 야훼(Yahweh)의 단축형으로 나탄(Natan)이 주셨으니 야훼께서 주셨다. 내 이름은 신론적인 이름입니다.

우리는 신론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야(Yah)는 야훼(Yahweh)의 단축형이다. 예레미야, 히스기야, 스가라는 신권적 이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바알, 하닷 등과 같은 다른 신들에 대해서도 신언적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변칙적 증거를 추적함으로써 우리는 특정 상황에서 숭배되었던 신들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리적, 연대순 분포까지 추적하여 해당 맥락에서 숭배되는 신들과 일치하는 이름의 인기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항상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무함마드(Muhammad)라는 기독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 중 한 명은 기독교인이었고, 한 명은 무슬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항상 사람들의 종교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 상황, 특히 종교나 종교적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많은 현대적 상황보다는 신들이 특정 민족 그룹에 묶여 있고 지역에 묶여 있는 곳에서 그들은 예배의 관련성에 대한 큰 그림까지 말합니다. . 자, 성경에는 이름이 바뀌는 등의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시대에 숭배되었던 신에 관한 한 암시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특정 비문, 특히 긴 비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꽤 많은 흥분을 불러일으킨 두 가지, Khirbet al-Qom과 Qintilat al-Jarud가 야훼와 그의 아세라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Qintilat al-Jarud pithos에 묘사된 도상학이 야훼와 그의 아세라를 묘사한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도상과 각인은 서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공백을 누군가가 메웠던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세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이름에는 대명사 접미사가 없기 때문에 신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세라는 도구, 신성한 나무, 여성 신을 연상시키는 일종의 형상이지만 실제로는 야훼 숭배에 사용된 것입니까? 나는 12월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는 일부 기독교인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전에 이교의 상징이었던 것을 다시 차용하여 특정 종교적인 우산 아래 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이콘과 의미, 예배와 현존과 예배 사이의 일치라는 우리가 때때로 깨닫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고대 유물을 볼 때에도 동일한 도구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성경 본문에서 흥미롭게도 거의 항상 복수형인 바알과 아세라를 둘 다 복수형으로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철기 시대에는 이러한 신들과 주변 민족들의 숭배와 통합이 많았고, 이는 야훼 숭배에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상학의 훌륭한 예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 비블로스에서 발견된 성서의 히람과 연관시킬 아히람 석관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죽은 왕이 처진 연꽃으로 표시되어 공양상 앞에 그릇을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는 그의 발을 발등상 위에 올려 놓았고, 그의 보좌는 옆에 있는 그룹들, 옆에 있는 그룹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자, 지성소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 대한 설명에는 법궤를 덮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일종의 왕좌의 형태나 기능이라고 제안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방주 자체를 발등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 도상학의 일부를 통해 명확해질 수 있는 명확성의 바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겐 가구가 있어요. 이것은 비이코닉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신이 거주하는 가구가 있는데,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예는 이스라엘 계곡 가장자리의 타나크에 있는 기원전 9세기의 타나크 숭배 스탠드입니다. 여기에는 비문이 없지만 확실히 송아지가 있는 종교적 도상학을 묘사하고 있으며, 일부는 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이해합니다. 다른 많은 송아지와 함께 날개 달린 태양 원반과 아마도 기둥을 나타내는 측면에 곱슬머리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야생 염소와 사자가 옆에 있는 나무. 여기 옆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두 개의 그룹이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기록부에는 두 마리의 사자와 함께 있는 여성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야훼와 일부 여성 신, 아마도 아세라, 또는 특정 아세라의 후기 표현에 대한 묘사를 가지고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야훼는 태양의 상징으로 추상적이고 상징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성경에 묘사된 충실한 왕인 히스기야도 그의 도상학에서 태양 원반을 이미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훼를 태양 원반과 연관시키는 성경 본문도 있습니다. 자, 여기 송아지 위에 좌정하신 야훼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왕국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송아지는 신을 위한 차량이나 받침대입니다. 야훼와 관련된 그룹. 그리고 다음으로 기록되는 것은 신성한 나무, 염소, 사자입니다.

이들은 모두 고대 근동 지역의 일반적인 여성 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훼와 아세라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빈 공간에는 그룹들, 야훼가 있고, 다시 사자들이 있는 여성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그룹, 사자, 사자. 그래서 저는 여호와와 아세라, 여호와와 아세라를 제안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이미지의 구체적인 식별 여부와 상관없이 종교적 전통이 혼합된 확실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종교와 문화를 더 광범위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지막 예는 고대 근동 고고학과 고대 이스라엘 외부의 문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원, 다른 제의 도구, 광범위한 텍스트 및 민족지학적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희생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 신성한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성경적 의식, 찬송가, 성전, 신권, 도구 및 수많은 유사점과 평행을 이루는 여러 의식에서 유사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많고 차이점도 많습니다. 물론 가장 큰 차이점은 예배의 대상이 고대 이스라엘의 인격적 신인 야훼라는 중심성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완전한 원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끝내기 위해, 군주제의 위계와 관련하여 종교가 기능하는 방식에 있어서 흥미로운 구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른 모든 상황에서는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대제사장이 종종 왕이거나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왕의 모습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높은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

종교와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 매우 다른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야훼 자신임을 올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한 곳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사 전반에 걸쳐 썰물과 흐름이 일어나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역할의 설계 사이에는 긴장과 대조가 있습니다. 이 계획에 반대하는 고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야훼 숭배의 표현인 그 종교는 정치적 인물이나 국가 이데올로기가 아닌 야훼와 야훼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요즘 신앙의 맥락에 있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오래 전 일이고 먼지 층에서 발굴해야 하지만, 그것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관련성이 있고 흥미를 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약성서에 나오는 조나단 그리어(Jonathan Greer) 박사와 그의 고고학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세션 5, 문화적 맥락입니다.